목포시, 하루 6명 출생 3.2명 사망

2006년말 인구 24만2천755명…3년째 정체

교통사고 하루 4.5건, 자동차는 0.8대 늘어

2007년 목포 통계연보

지난해 목포시에서는 매일 6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3.2명이 사망했으며, 4.3쌍이 신혼살림을 꾸린 반면 2.2쌍이 이혼했다.

또 자동차는 매일 0.8대씩 늘어났으며,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4.5건, 범죄는 37.1건이나 발생했다.

목포시가 최근 펴낸 '2007년 목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목포시 인구는 24만2천7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24만2천380명, 2005년 24만3천872명인 점을 감안할 때 24만 3천명선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지난 2000년 9.5명에서 2001년 8.3명, 2002년 7.3명, 2003년 7.1명, 2004년 6.6명, 2005·2006년 6명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천571쌍이 결혼에 골인했으며, 806쌍이 갈라섰다.

자동차는 매일 0.8대씩 증가해 2007년 말 현재 7만1천85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도 지난 2004년 2천750건에서 2005년 1천453건으로 급격히 줄었으나 2006년 1천644건이 발생해 해마다 매일 4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1만2천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이 7천41건, 신호위반이 2천443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음주운전도 2천394건이나 적발됐다.

이 밖에 범죄는 2001년 1만446건, 2003년 1만2천505건, 2005년 1만3천329건, 2006년 1만3천559건 등 매년 1만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태식 목포시 정보통신과 통계담당은 "통계연보는 시의 발전상과 변화된 각종 자료들을 수치화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 통계자료다"며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단순히 수치만을 소개한 책자가 아니라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시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한 시정백서"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해군 3함대 최신 구축함 '강감찬호' 공개

해군 제 3함대 사령부가 지난 26일 충무공 탄신 463주년을 맞아 최신예 구축함인 강감찬함을 일반에 공개했다. 사령부 제 2부두에서 열린 이날 공개행사에는 1천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3함대 장병들의 안내에 따라 함정을 둘러보고 각종 시설과 함포 등 무기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목포~제주 항로 '퀸메리호' 뜬다

내달 1일부터…20분 단축

다음달 1일부터 목포~제주 항로에 국내 최대·최고 시설을 갖춘 카훼리 여객선이 취항한다.〈사진〉

신규 취항하는 카훼리 여객선 '퀸메리호'(1만6천t)는 길이 150m, 너비 25m로 승객 1천650명과 승용차 300대를 실을 수 있으며, 제주까지 4시간이 소요된다.

퀸메리호는 이벤트홀과 세미나실, 편의점, 노래방, 고급 식당과 해수 사우나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호텔급 수준의 객실을 갖춘 크루즈형 여객선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기업도시내 역세권 개발계획 세워라"

한중 국제산단 주민공청회

무안군이 한중국제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에 앞서 개최한 주민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5일 서삼석 무안군수와 정시채 기업도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해당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정영덕 전남도 도시계획 전문위원은 "서해철도 연결과 고속철도 무안경유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작 기업도시내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면서 개발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정위원은 또 "기업도시와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동시추진이 어려운 만큼 개발가능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올 10월 개발행위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기업도시 외 지역은 재지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희남 주민대표도 "현시가에 준한 보상과 중국기업 입주민들과의 원활한 교류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영농활동을 가능토록 영농단지를 조성해줄 것과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산정동 채석장 폐부지에 체육공원 조성

목포시 20억 들여 풋살장·파고라·음수대 등 설치

목포시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 자연녹지에 생활체육 공원이 조성된다.

이지역은 채석장으로 사용된 뒤 수년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해 왔으나 이번 체육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1만7천145㎡ 규모인 산정동 생활체육공원은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풋살장과 게이트볼장·복합 경기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추게 된다.

또 팔각 정자 2개소와 파고라 4개소,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연말까지 설치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7월 부지 소유자인 중앙건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지난 3월초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영산호 연결 횡단보도 폐지·신호 시간 재조정

목포 해항청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영산강 하구언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사거리 신호체계가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항만청 사거리 교통섬에 설치된 4개 소의 횡단보도 가운데 항만청에서 영산호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는 없애고 나머지 횡단보도 3개소는 뒤쪽으로 50~100m 옮긴다.

또 하구언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 방면 별 교통신호 시간을 재조정하고, 평소 교통량이 적은 갓바위 공원→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과 옥암지구→영암 방면으로의 좌회전이 금지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전국 첫 '섬對섬' 자매결연

신안 팔금-제주 추자도 "양 지역 상생발전"

신안군 팔금면과 제주시 추자면이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섬과 섬 간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팔금면에서 열린 자매결연식에서 양 지역은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특산품 교류 등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종순 팔금면장은 "팔금면과 추자면이 행정, 문화, 관광, 복지 교류 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고 강경일 추자면장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상호교류의 폭을 넓혀 어민 소득증대를 통해 서로 잘 사는 섬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섬지역 청소년 선도 걱정마세요"

신안군 법무부 범죄예방委

신안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회장 문용희)가 섬지역 청소년 범죄의 사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 범죄예방위원회는 불우한 청소년 돕기 운동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운동, 취업·직업훈련 알선, 장학금지원,농촌일손 돕기,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등을 통해 준법정신 실천운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위원회는 결손가정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가 하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불우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도 지원하고 있다.

문용희 회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범죄없고 살기 좋은 신안군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골리앗 크레인 완제품 출하 성공

(주)한영산업 서남권 최초…인양능력 6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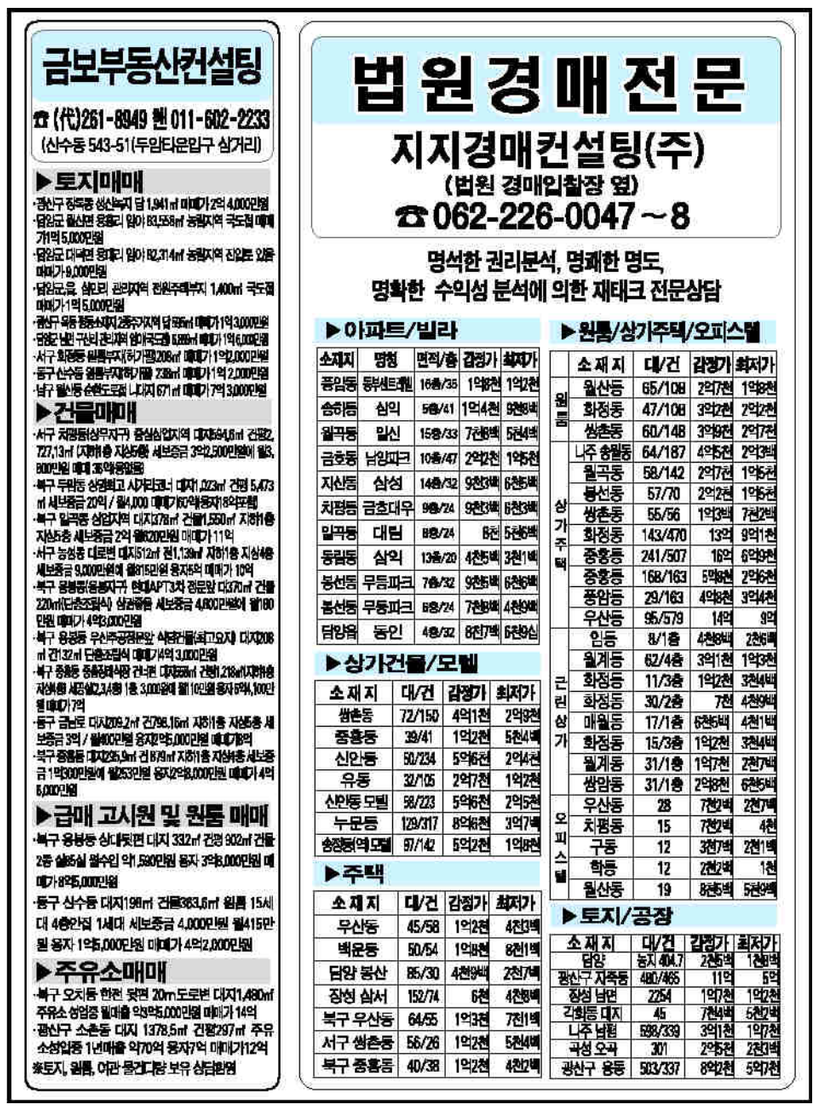
목포소재 해양구조물 전문 생산업체인 (주)한영산업(대표이사 한웅)이 서남권 최초로 골리앗 크레인 전체를 완제품으로 출하하는 데 성공했다.〈사진〉

이번에 완성된 크레인은 중량 2천200여t 규모로 거더(Girder=대들보) 크기만 폭 10m, 높이 14m, 길이 180m에 달한다.

인양능력은 600t급으로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선박블럭 탑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영산업은 육상에서 3블럭씩 조립하는 신 공법을 도입해 조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함은 물론 품질 향상 및 작업 위험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골리앗 크레인 완제품 출하 성공으로 국내외 대형 구조물 공사를 서남권에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영산업은 900t급 골리앗 크레인 5대의 추가 제작 및 수주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3천만불 이상의 대형 광산용 산업 운반기계를 수주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